

TV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⑤:40 절대까지 가보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광장	0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스페셜	⑤:00 2014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LA:클리블랜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00 MBC뉴스투데이 50 MBC아침드라마 〈모두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새 시지도자에게 듣는다 15 굿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재) 55 토티 생활체조(재)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⑪	2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특선양크르 KBS-CCTV 공동기획 〈13억의 질주〉 55 바르날 고운말(재)	15 사랑의 가족 45 수목드라마 〈조선 총잡이〉(재)	0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⑫	2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12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특별기획 〈호텔킹〉(재)	00 SBS 12 뉴스 30 닥터365 35 한국의 맛 00 화첩기행
①	30 뉴스 특급	00 2014 아시아-퍼시픽 대학농구챌린지 개막전 〈고려대:브리검영대〉	00 KBS 뉴스타임 10 퀴즈쇼 사총사	20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재)	00 SBS 뉴스 10 중흥S-클래스배 2014 고교교문골프대회
②	40 직언직설				
③	50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뉴스토크	3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주로링 동물탐정(재) 55 TV유치원 공다공	00 MBC 경제 뉴스 10 보글 쿡 원정대 40 헬로키티아해 지구탐험대2	10 세상발견 유레카
④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시사잔단 55 토티 생활체조	25 코파 반장의 동화 속사대 55 비타민(재)	30 신동방송 호기심 탐험대	00 꾸러기 탐구생활
⑤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 마음의 크레파스
⑥	0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특별생존계 한중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⑦	20 백일섭의 그때 그 사람(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배우기 동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떠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⑧	20 신대동여지도(재)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55 법상의 신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⑨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⑩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국제공동제작 KBS파노라마 〈위험한 생명 제2편〉 50 특집다큐 중국의 과거와 미래	00 수목 드라마 〈조선 총잡이〉	00 수목미니시리즈 〈윤영처럼 널 사랑해〉	00 드라마 스페셜 〈너희들은 포위됐다〉
⑪	00 웰컴 투 시월드	30 KBS 뉴스라인	10 해피 투게더	15 별바라기	15 자기야
⑫	20 카툰쇼S(재) ①:30 관찰카메라 24시간	30 인문강단 락(樂) ①:10 네트워크 문화원전 이현상의 올댓뮤직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리얼 체험 세상을 품다(재)	35 MBC 뉴스24 55 우리가รัก 우리문화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①:05 토크콘서트 〈화통〉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14:00 머털도사
05:40 장수의 비결(재)	〈생활백과〉	14:30 코코몽2
06:10 세계의 눈 〈특선〉(재)	10:10 리얼토크 부부	14:45 곤
07:00 곤(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5:00 지구를 지켜라
07:15 우당탕탕 아이쿠(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15 마사와 곤
07:30 꼬마버스 타요(재)	〈속디 라오! 라오스 4부〉(재)	15:30 꼬마거북 프랭클린
07:45 로보카 폴리(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덩동영 유치원(재)
08:00 덩동영 유치원	12:10 연꽃기획	16:10 레츠 & 파리
08:20 책과 땅(재)	〈행복한 교육세상〉	16:20 우당탕탕 아이쿠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05 역사채널e	16:30 책갈피 요정 모보
08:50 How-만들어 볼까요	13:10 사이먼	16:45 How-만들어 볼까요(재)
09:05 책갈피 요정 모보(재)	13:20 풀꽃! 페퍼는 즐거워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09:20 미술탐험대	13:30 고양이 파피	17:15 꼬마버스 타요
09:35 아기 고릴라 동동	13:45 반짝반짝 발명 클럽	17:30 로보카 폴리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올림픽스	〈국어 1〉	07:00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50 "
00:50 "	〈국어 1〉	07:30 실험관찰 비법 노트	16:20 "
01:40 "	〈영어독해의 기본 1〉	08:00 한국사능력검정 시험대비강좌	16:50 "
02:30 "	〈수학 1〉	08:30 직업상담사 시험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09:00 출거문 수학 EBS MATH	〈수학집중 6-1〉(재)
04:10 "	〈과학〉	09:10 TV 중학	〈국어 ①②〉
05:00 "	〈한국사(하)〉(재)	09:50 "	〈영어 1〉
05: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	14:00 "	10:30 "	〈도덕 2〉
06:40 압축탐스런 〈지구과학 1〉	15:40 "	11:10 "	〈국어 ③④〉
07:30 2014 포스 〈문학 1〉	16:30 "	11:50 "	〈영어 2〉
08:20 올림픽스 〈영어독해 기본 1〉(재)	17:20 "	12:30 등업신공	〈사회 1〉
09:10 "	〈수학 1〉(재)	13:10 "	〈역사 1〉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19:50 5분 과탐·지구과학 1 (재)	13:50 "	〈역사 2〉
10: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재)	20:00 수능특강 〈국어 B형〉(재)	14:30 "	〈사회 2〉
	21:00 EBS-N제 〈수학B형〉	15:20 만점왕	〈과학 3-1〉
	22:00 인터넷 수능 〈문학B형〉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7월 3일(음 6월 7일 乙亥)	
	36년생 돌밭 상황이 나타나리라. 48년생 눈여겨왔던 것이 드디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60년생 조화롭지 못한다면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72년생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84년생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행운의 숫자 : 15, 41		42년생 끈질기게 기다린 자만이 확득하게 되리라. 54년생 본의 아니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66년생 단순하기는 하나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78년생 노력에 상응하는 성숙한 열매가 맺는 면모이다. 행운의 숫자 : 37, 94
	37년생 상심 할 수도 있다. 49년생 시작하는 첫머리가 지배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니라. 61년생 약간의 오류가 보이니 신속히 바로 잡자. 73년생 도토리 키 재기 식이니 별 의미가 없다. 85년생 불만하더라도 수정해도 좋다. 행운의 숫자 : 57, 16		43년생 내버려두면 점차로 쇠하여 기력을 다 할 것이다. 55년생 누적인 모순이 병폐로 드러나리라. 67년생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목격하였던 바이다. 79년생 가장 원초적인 연월부터 따져 보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86, 66
	38년생 돌이킬 수 없는 길목에 서 있으니 판단을 잘 해야겠다. 50년생 일단 상대의 말을 다 들어보는 것이 순서이다. 62년생 소중히 여겨 왔던 것이 빛을 보게 된다. 74년생 삼중고에 시달릴 수도 있는 약재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2, 81		44년생 상대의 모호한 태도나 반응으로 답답할 수다. 56년생 명징한 사고가 유익한 활동을 유도하리라. 68년생 발전의 주춧돌이 될 만한 길사가 생기겠다. 80년생 결정된 것은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95, 03
	39년생 술선수범한다면 궁극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느니라. 51년생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행할 일이다. 63년생 마지막 라운드에서 안타를 치는 이치와 같도다. 75년생 연연력이 생겨서 관참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4, 07		45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것이 안전 하리라. 57년생 한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69년생 경사가 급한 비탈길을 내려오고 있다. 81년생 기득권을 인정하고 대세에 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행운의 숫자 : 67, 48
	40년생 말만 잘 하면 천 냥 빚도 갚을 수 있다. 52년생 상대의 말을 경청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64년생 초심의 생각이 머지않아 바뀔 수도 있다. 76년생 갑갑한 마음을 후련하게 풀어줄 일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75		46년생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무리가 따르리라. 58년생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선견지명이 절실하다. 70년생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2년생 남을 의식하며 내밀하게 행하는 국세이니라. 행운의 숫자 : 49, 14
	41년생 힘든 만큼 수확의 결실도 알차고 많을 것이다. 53년생 조짐이 좋으니 분명히 길사가 일어날 것이다. 65년생 동기를 부여하는 기반이 조성되리라. 77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행운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93, 28		47년생 발상은 좋으나 침묵하고 있다면 무의미하다. 59년생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핵심을 살필 수 없을 것이다. 71년생 항상 것이 아니하고 마리에 세가는 것이 좋다. 83년생 매우 구체적인 아이디어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2, 5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경!” ☎010-9790-8237			



영화 ‘신의 한수’ 이범수 악인 살수 役

“차갑고 섬뜩한 내 표정에 나도 놀랐죠”

“영화 속에 바둑 두는 상대방이 패배를 직감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는 이제 죽었다’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내게 저런 표정 있구나’라고 신기하게 생각했죠.”

2일 개봉한 영화 ‘신의 한수’에서 ‘살수’ 역할을 맡아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배우 이범수(44) 이야기다.

1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범수는 “‘절대악’으로서 살수를 협오스라든 악인으로 보이도록 정말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바둑’이 중심 소재로 쓰인 액션 영화 ‘신의 한수’는 프로 바둑기사 태석(정우성 분)과 내기 바둑계의 최종보스 살수(이범수 분)가 벌이는 대결이 줄거리의 핵심 기동이다.

극중에서 이범수는 잔혹한 악당으로 분해 복수를 꾸꾸는 태석과 맞붙어 시뻘건 피가 남지한 선 굵은 복수극을 그린다. 이야기에 추진력을 더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복수의 주체인 태석의 묵이지만, 극 전반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살수가 해낸다.

“새로운 악당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보통 악당을 떠올리면 원초적인 무식함과 투박함이 있잖아요. 하지만 살수는 냉정하고 예리하고 간결한 느낌이지요. 얼음처럼 차가운 느낌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죠. 말로 떠버리기 보다 눈으로 말하는 차가움을 지녔으면서도 때로는 망설임 없는 자신감으로 과감히 살상하죠.”

극중 살수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캐릭터이기에 어떤 때보다 미묘한 감정 연기가 중요했다. 또 바둑이 중심 소재이다 보니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섬세한 노력도 필요했을 것 같다.

이범수는 직접 손가락을 펼쳐 착수 동작을 재현하며 “가장 부드러운 곡선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수를 둔다는 미묘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중지과 약지로 돌을 잡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기적으로는 살수는 먼저 자신이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에 반응하는 형식이 많았다는 점이 독특했다”고 돌아봤다. 다만 한편으로는 ‘살수’가 어

떤 배경을 지닌 인물인지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아쉬움도 남긴다.

그는 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나는 아쉽지 않다. 오히려 설명되면 캐릭터가 평범해질 것”이라며 “외계인이 침략하는 SF영화에서 침략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 않나. 비슷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배데랑 연기자로서 그는 지금껏 캐릭터와 장르를 막론하고 수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했다. 최근에는 드라마 ‘트라이앵글’에서 주인공 삼형제의 맏이로 활약 중이다.

“연기는 역할을 맡는 놀이니까 다양한 역할을 맡는 것은 즐거움이지요.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착한 역할을 맡은 저를 보면 측은함이 느껴질 때도 있고, 악역을 맡았을 때는 섬뜩함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는 영화와 TV드라마의 차이로 “드라마는 작업 과정에서 유동적인 부분이 많아 긴장과 스릴이 있다”고 짚으며 “장르와 상관없이 내가 마음껏 ‘몰래’할 공간이 많은 작품이면 좋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의 한수’에는 ‘세상은 하수에게는 지옥이고, 고수에게는 놀이터’라는 대사가 있다. 이범수에게 촬영장은 어떻게 느껴질까.

그는 “두 가지 모두”라며 “배우는 상처받기 쉬운 동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예민함을 즐기는 동물이기도 하다. 실제 감정과 연기 사이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 하는 것 같다”고 소신을 밝혔다.

가로세로 열아홉줄씩 고여져 있는 반상(盤上)에는 승리를 꾸꾸는 검은돌과 흰돌이 ‘행마’라는 형식으로 각자의 삶의 궤적을 그려 나간다. 흰돌과 검은돌 가운데 무엇이 더 마음에 들리는지 몰았다.

“검은돌에 끌려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수가 검은돌을 쥐고 바둑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아직 부족함이 많아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웃음)

한석규 3년만에 영조로 돌아온다

SBS 월화드라마 ‘비밀의 문’ 주연

SBS 사극 ‘뿌리깊은 나무’에서 세종으로 열연했던 배우 한석규가 올가을 영조로 돌아온다.

SBS는 한석규가 오는 9월 중순 방송되는 SBS 월화드라마 ‘비밀의 문’(부제 : 의궤살인사건)에서 영조 역으로 출연한다고 2일 밝혔다.

‘비밀의 문’은 조선 영조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한석규가 맡은 영조는 강력한 왕권을 지향하면서 신하들 충성심을 끌어냈던이 시련하는 정치 고수다. 신분 귀천이 없는 공평한 세상을 주창한 아들 사도세자와 갈등을 빚는 역이다.

이번 작품으로 3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하는 한석규는 “성군이자 비정한 아버지로 평가받는 영조를 꼭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면서 “캐릭터를 탐구해 재해석된 새로운 영조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BS는 “‘비밀의 문’은 조선왕조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가족사이다 의



궤에 얽힌 살인사건이라는 궁중미스터리를 입혀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비밀의 문’은 권상우·최지우 주연 ‘유혹’ 후속으로 방송된다.

‘설국열차’, 미국 상영관 8개→250개 확대

미국에서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오는 4일부터 250개 상영관에서 확대 상영된다고 이 영화의 배급사 CJ E&M이 2일 밝혔다.

앞서 ‘설국열차’는 지난달 27일 미국내 8개관에서 개봉했다. CJ E&M은 “‘설국열차’가 뉴욕타임스 등 유력 언론으로부터 연일 호평을 받으면서 개봉 일주일 만에 큰 폭으로 상영관이 확대됐다”면서 “‘설국열차’는 관객 반응에 따라 스크린 수를 늘려가는 몰아웃 방식으로 미국 주요 도시에서 상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국열차’에 대해 USA투데이는 “초현대적 액션 스릴러와 지적인 예술 영화의 본질을 완벽하게 조합해 낸 작품”, LA타

임스는 “개인적 서사와 거대 서사가 환상의 조합을 이룬 영화”, 뉴욕타임스는 “여름 극장이 관객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영화”라고 호평했다.

또 ‘바라이어티’ ‘할리우드 리포터’ ‘롤링스톤’ 등 영화·연예 전문지들도 일제히 ‘설국열차’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를 게재했다고 CJ E&M은 밝혔다.

/연합뉴스

